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5면)

“공단 이사장 인사 논란... 객관적 검증 절차 마련”



박성희 송파구의원 (석촌, 가락1, 문정2동)

송파구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은 26일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 유발언을 통해 공단 이사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공직윤리와 상식을 바탕으로 한 인사권 행사, 기관장 인사에 대한 실질적·객관적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희 의원은 “신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과거 공직 수행 과정에서 업

무추진비 남용 논란으로 공직윤리와 청렴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던 인물”이라며 “공직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송파구 공공기관장 자리에 어떻게 이런 인물을 앉힐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사장 임명에 대해 야당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과 같은 여당 의원들마저 임명 철회를 공식적으

로 요구하고 나섰다”면서 “이는 송파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책임자를 제대로 검증해 적격한 인사를 임명했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인사 책임을 묻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자격 미달과 적격성 논란이 있는 공단 이사장 임명 즉각 철회, 공직윤리와 상식을 바탕으로 한 인사권 행사,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 마련을 구청장에게 촉구했다.